

## 꽃잎 하나 떨어지면

오늘 새벽에 내 가까이서 꽃잎 하나가 떨어졌다. 나는 그가 유난히 힘들고 긴 겨울을 잘 견디어 곧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리라 믿고 소망했다. 그는 선하고 어진 사람이다. 그는 나보다 다섯살 아래인, 아직은 젊은 사람이다. 살아온 날만큼이나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이다. 아직도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하늘의 소명을 위해서나 할 일이 많이 남은 사람이다. 그는 2년 가까운 시간을 뇌종양 암과 싸우며 잘 견디어낸 강한 사람이다. 곧 완쾌하리라 믿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 견잡을 수 없이 꺼져갔다. 우리 교회에는 지금 다섯명의 암환자가 있다. 모든 교인들이 전력으로 이분들을 위해 기도한다. 릴레이식으로 교회에 모여 중보기도를 하기도 하며, 가까운 지인들은 수시로 방문하여 기도하고 위로한다. 하지만 그의 아내만큼 애절한 기도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 며칠동안은 의식이 전혀 없는 혼수상태이니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한마디만이라도 남편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남편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 가슴이 아프다.

릴케의 <가을날>의 시 처럼 “주님, 때가 왔습니다. / 여름은 아주 위대했습니다. /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놓으시고 / 별판에 바람을 놓아주소서. // 마지막 잎새들이 탐스럽게 무르익도록 명해 주시고 / 그들에게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베풀어 주소서./ 열매들이 무르익도록 재촉하여 주시고 / 무거운 포도송이에 마지막 단맛이 스며들게 해 주소서.” 그의 아내는 애원했을 것이다. “단 이틀만 더,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단 10분만이라도 그와 마지막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애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그녀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셨다. 아니 분명 들으셨으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절규가 기억난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살아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것입니까?” 너무나 통절하고도 애절한 기도다. 성녀이신 수녀님마저 그토록 주님을 갈구하지만, 그분의 크신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생(生)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命令)이다. 그래서 생명(生命)”이라고 최인호씨는 말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그분이라면, 나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그분이신 것은 당연한 순리다. 그도 침샘암으로 몇년간을 투병하다가 결국 그분의 부름을 받고 말았다. 그때 쓴 수필집이 <인생>이다. 그 책은 그의 마지막 신앙고백집 같은 느낌이다. 몇가지 내용을 이 책에서 인용한다.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음을 알게 한다. “질병에서 완쾌하게 해주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꿈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등등은 그분과의 벼랑끝 협상이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같은 입장의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으신가? 성 프란체스코 살레시오는 기도를 이렇게 말한다. “아무것도 청하지 말고, 아무 것도 거절하지 말라.” 주님도 마지막 기도가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우리의 기도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고, 잘못 찾고, 잘못 두르렀기 때문이다. 나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분과 소통함으로써 내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세상 끝날 날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더 이상의 무엇을 원하겠는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세상에 나만 외톨이가 아니라는 공동체 의식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날만큼 고맙고 희망이 된다. 오늘은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언젠가 내가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래서 기도는 살맛 나는 가치이며, 그래서 필요불가분의 조건이다.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또 다른 꽃잎이 되어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잊혀져야 한다. 살면서 이별연습이야 셀 수 없이 했겠지만 막상 부닥치면 이별이 쉬운 일인가. 그리우면 그리운대로, 울고 싶으면 울며 살아야 한다. 꽃잎은 떨어져도 꽃은 또 피어난다. 죽음이 부부의 연을 끊어 놓을 때까지 살 수 있었음만으로 그분께 감사할 일이다. 이제 이승에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잘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살고 있다는 자체가 그분의 은총이다. 성녀 소화 데레사는 이렇게 말한다. “매순간 단순하게 살지 않으면 인내심을 갖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를 잊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합니다. 매 순간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조용히 쉬지않고 안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과거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집착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미래의 마음을 얻으려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또한 현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사리분별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분께서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요, 오늘 고생은 오늘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한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매 순간을 그분께 충실하다보면 또 다른 봄날은 올 것입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